

出土資料에 根據하여 본 設字・身字・首字・舜字・信字의 上古 聲母^{*}

金俊秀^{**}

< 목 차 >

1. 緒論
2. 李方桂 體系와 鄭張尙芳 體系의 書母 上古 再構音
 - 2.1 李方桂 體系
 - 2.2 鄭張尙芳 體系
3. 出土資料에 根據한 先行研究
 - 3.1 趙彤(2003)・윌리엄 백스터(William H. Baxter/2010)
 - 3.2 金俊秀(2011)
 - 3.3 노하라 마사키(野原將揮/2012)
4. 先行研究에 대한 檢討 및 評價
 - 4.1 設字의 上古 聲母
 - 4.2 身字의 上古 聲母
 - 4.3 首字의 上古 聲母
 - 4.4 舜字의 上古 聲母
5. 信字의 上古 聲母
6. 結論

1. 緒論

《切韻》音系에서 正齒音에 속하는 書母(審母三等)는 베른하르트 칼그렌

* 본 논문은 第15次 韓國漢字音研究會(春川: 國立江原大學校, 2013년10월26일)에서 발표하였다.

** 漢陽大學校 講師.

(Bernhard Karlgren/1919)에 의해서 무성 치조 경구개 마찰음인 c-1 로 재구되었고,²⁾ 이 재구음은 지금까지도 별 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書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거의 대부분 s- 으로 규칙성 있게 변화하였으며,³⁾ 현대 중국 표준어음에서는 대체로 ʃ- 로 발음된다.⁴⁾ 중국의 방언을 보자면, 平陽·太谷·西安·蘭州의 방언에서 ㅅㅁ字가 f- 로 변화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閩方言을 제외한 대부분 방언에서는 대체로 마찰음인 $\text{s-} \cdot \text{ʃ-} \cdot \text{c-}$ 의 범위 안에서 변이되었다.⁵⁾

그런데 중고음에서 書母에 속하는 글자들의 諧聲 관계를 살펴보면, 상고 시기에는 이 글자들이 단일하게 마찰음으로 읽혔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書母字가 속해 있는 諧聲系列에는 치조 파열음·연구개 파열음을 비롯하여 때로는 유음과 비음까지도 출현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제1세대 상고음 체계라고 할 수 있는 ㄱㄷㄹ 체계라든가 ㄱㄷㄹ 체계에서는 書母字들의 상고 성모를 중고음과 동일하게 *c- 로 재구하였는데, 이것으로는 상고 시기의 복잡다단한 諧聲 관계를 설명해 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제2세대 상고음 체계인 李方桂 체계에서부터 몇 종류의 複聲母가 합류하여 중고시기에 c- 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며, 제3세대 상고음 체계인 鄭張尙芳 체계 및 B-S 체계에서도 書母의 상고 연원으로 다수의 複聲母가 재구되었다.

鄭張尙芳 체계를 예로 들자면, $\text{*hlj-} \cdot \text{*hNj-} \cdot \text{*qʰj-}$ 와 같은 세 종류의 複聲母가 前置子音에 의한 核子音의 소멸 및 구개음화를 거쳐 중고시기에 c- 로 합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書母字를 세 종류의 複聲母 중 어느 것으로 재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說文解字》에 수록된 諧聲字가 주된 근거로 활용되었다.⁶⁾ 다만, 諧聲에 완전히 혹은 거의 쓰이지 않는 일부 상형자·

1) 한국어 '시'·일본어 'し'·중국어 'xi'의 머릿자음이 c- 이다.

2) 高本漢著, 趙元任·羅常培·李方桂合譯, 《中國音韻學研究(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北京: 商務印書館, 2003년6월縮印第2刷, 305쪽.

3) 河野六郎著, 李珍昊譯, 《한국한자음의 연구(朝鮮漢字音の研究)》,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0년8月初版, 142-143쪽.

4) 陳新雄, 《廣韻研究》, 臺北: 臺灣學生書局, 2004년11月初版, 300쪽.

5) 高本漢著, 趙元任·羅常培·李方桂合譯, 《中國音韻學研究(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北京: 商務印書館, 2003년6월縮印第2刷, 299쪽.

지사자・회의자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새로이 발굴된 출토문헌에는 종래의 傳世文獻에 보이지 않는 通假 현상이라던가 새로운 구조의 형성자가 다수 보이고 있어, 《說文解字》의 諧聲 체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없었던 새로운 단서를 우리에게 다수 제공하여 주고 있다. 이미 趙彤(2003)・윌리엄 백스터(William H. Baxter/2010)・金俊秀(2011)・노하라 마사키(野原將揮/2012) 등이 출토문헌의 고대 한자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書母字의 재구성에 수정 의견을 내놓거나, 기존의 재구음을 보강할 수 있는 보충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우선 書母의 상고 연원에 대한 李方桂 체계와 鄭張尙芳 체계의 재구음을 소개하고, 더불어 출토자료에 근거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면밀히 검토・평가한다. 그리고 信字의 상고 재구음 문제를 토의한다.⁷⁾

6) 鄭張尙芳(2003)에 의해 재구된 상고 중국어의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聲母 성모			韻母 운모		
冠音 (前置輔音) 전치자음	詞根 어근			後附尾 (後置韻尾) 후치운미	
	聲基 어근 성모		韻基 어근 운모		
	聲幹 (基輔音) 핵자음	墊音 (後置輔音) 후치자음	韻腹 운복		韻尾 운미

예를 들어 𪛗字의 상고 재구음인 *hmrun[s]에서 h는 전치자음, m은 핵자음, r은 후치자음, u는 운복, n은 운미, s은 후치운미이다. (聲母・韻母・韻腹・韻尾와 같은 전통 성운학의 용어는 국내학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므로 따로 번역하지 않았으나, 冠音・聲幹・墊音 등과 같이 鄭張尙芳이 새로이 제시한 용어는 표에 기입한 필자 나름의 번역어를 사용한다.) 複聲母의 경우 諧聲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핵자음인데, 單聲母化의 과정 속에서 전치자음만 살아남고 핵자음이 약화되어 사라진 현상을 鄭張尙芳은 '冠音吞沒'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전치자음에 의한 핵자음의 소멸'이라고 풀어서 번역하였다. 예를 들어 *hlj-에서 가장 중요한 핵자음은 본래 l인데, 후세의 音變 과정 속에서 l이 약화되어 사라지고 전치자음인 h-가 구개음화되어(j) 중고의 c-가 된 것이다.

7) 두 가지 사항을 일러둔다.

첫째, 본고에서는 상고 재구음에는 *를 붙이나, 중고 재구음에는 *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甲 > 乙은 상고음 甲이 중고음 乙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본고는 기본적으로 鄭張尙芳 상고음 체계(2003)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그것은 鄭張尙芳 《上古音系》에 수록된 <古音字表>의 재구음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수정 재구음에는 □를 덧붙인 <古音字表>의 재구음과 구분한다. 즉, 身 *q^hjin / [*hnjin은, <古音字表>에 수록된 身字의 재구음은 *q^hjin이고, 본고가 제시하는 수정 재구음은 *hnjin이라는 의미이다.

2. 李方桂 體系와 鄭張尚芳 體系的 書母 上古 再構音

2.1 李方桂 體系

李方桂(1971)는 書母의 복잡한 諧聲 관계가 몇 종류의 複聲母가 單聲母化되어서 중고의 ɛ-로 합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중고시기 ɛ-로 변화한 글자들을 諧聲 관계에 근거하여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다.

上古音	*hnj-	*nj-	*st^hj-	*t ^h -	*sk^hj-	*k-
	↓	↓	↓	↓	↓	↓
中古音	ɛ-	nɯ-	ɛ-	t ^h -	ɛ-	k-
	書母	日母	書母	透母	書母	見母

書母字 중에는 𪛗·攝·饌과 같이 비음과 해성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李方桂는 이러한 글자들의 상고 성모를 *hnj-로 재구하였다. 일반적인 비음 n-은 구개음화되어 nɯ-로 변화하였으나, 무성 비음인 hn-은 비음성을 일찍 잃어버린 관계로 구개음화를 거쳐 ɛ-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始·輸·詩와 같이 치조 파열음과 해성하는 書母字의 상고 성모는 *st^hj-로 재구하였으며, 翹·收·燒와 같이 연구개 파열음과 해성하는 書母字의 상고 성모는 *sk^hj-로 재구하였다.⁸⁾

李方桂(1976)는 s-점두사 문제를 다시 검토하면서, 상고 시기 s-점두사가 포함된 複聲母는 모두 《切韻》의 齒音(淸母·從母·心母·邪母) 성모로 변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sk^hj-를 *hnj-로 수정 재구하였는데, 아쉽게도 *st^hj-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⁹⁾

8) 李方桂, 《上古音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3년9월第5刷, 14쪽·19-20쪽·25쪽-26쪽.

9) 李方桂, <幾個上古聲母問題>, 《上古音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3년9월第5刷, 87-93쪽. / 훗날 遺稿에서 *st^hj-를 *t^hj-로 수정 재구하는 구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후세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지 않았다. 李方桂, <古音補正: 從審母說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

李方桂(1971)의 書母 上고 연원에 대한 재구음은 발표 직후부터 관련 연구자의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니컬러스 보드먼(Nicholas C. Bodman/1972)은 *st^hj-를 *hrj-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만약 以母(喻母四等)의 재구음을 r-에서 l-로 고친다면 *hlj-가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⁰⁾ 니컬러스 보드먼(1980)은 친족언어의 동원어휘를 근거로 하여 書母의 주된 연원을 *hlj-로 재구해야 할 것을 다시 주장하였고,¹¹⁾ 일평생 중국어와 티베트어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李方桂 체계를 보완하는데 힘써온 龔煌城(1990/1994)도 書母의 상고 연원을 *hlj-로 재구하였다.¹²⁾ 역시 李方桂 체계에 근거하여 상고음 연구를 진행하였던 何大安(1992)은 *hnj-·*hlj-·*hrj-가 합류하여 중고의 e-가 되었을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하였다.¹³⁾

2.2 鄭張尙芳 體系

鄭張尙芳(2003)은 기본적으로 李方桂(1971)의 틀을 계승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書母의 연원을 정리하였다. 본고는 鄭張尙芳 체계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기 때문에, 다소의 편폭을 할애하여 鄭張尙芳 체계에서 書母와 관련

究所集刊》第59本第1分, 1988年3月, 1-4쪽.

- 10) 성모가 치조 파열음인 글자와 諧聲하는 書母字가 등장하는 諧聲系列에는 以母字가 많이 나타난다. Nicholas Cleaveland Bodman, Some Chinese Reflexes of Sino-Tibetan s-Cluster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Vol.1, No.3, 1973年, 388쪽. 본 논문은 1972년 10월 미시건 대학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 중국어-티베트어 언어학 회의에서 최초 발표되었다.
- 11) Nicholas Cleaveland Bodman,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Data Towards Establish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Leiden: Brill, 1980, 100-107쪽.
- 12) 龔煌城, <從漢藏語的比較看上古漢語若干聲母的擬測>, 《漢藏語研究論文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年9月第1版, 43쪽. 원게재 《西藏研究論文集》, 1990年. 龔煌城, The First Palatalization of Velars in Late Old Chinese, 《漢藏語研究論文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年9月第1版 71·72쪽. 원게재 In Honor of William S-Y. Wang: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Language and Language Change*, 1994.
- 13) 何大安, <上古音中的*hlj-及相關問題>, 《漢語方言與音韻論文集》, 臺北: 文盛彩藝事業有限公司, 2009年7月第1版, 199-205쪽. 원게재 《漢學研究》第10卷第1期, 1992年.

된 재구음을 설명한다.

2.2.1 *hlj-

李方桂 체계에서 以母의 상고 연원은 *r-이었으나, 뒤이은 연구자들에 의해 *l-로 수정되었고, 이는 이미 정설로 자리잡았다. *l-이 핵자음의 역할을 하는 諧聲系列에는 端系·知系가 흔히 등장하는데, 鄭張尙芳은 유음이 치조 파열음으로 변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⁴⁾ 이러한 諧聲系列에 書母도 흔히 등장하는데 鄭張尙芳 체계에서는 그 상고음을 *hlj-로 재구한다. 船母는 《切韻》의 성모 체계에서 무성음인 ɕ-와 대립하는 유성음 z-인데, 그 상고 연원을 유성 성문 마찰음인 ɬ를 전치자음으로 하여 *ɬlj-로 재구하였다. 아래에 몇 개의 예를 든다.

① 台聲系(之部) : 台 *^hɬw : > ^hɬi 透哈平開一, 土來切 > 태 / 怡 *^hlw > ji 以之平開三, 與之切 > 이 / 治 *^hʷs > ɬi 澄之去開三, 直吏切 > 치 / 始 *^hljw? > ei 書之上開三, 詩止切 > 시

② 也聲系(歌1部) : 也 *^hla:l? > jia 以麻上開三, 羊者切 > 야 / 拖 *^ha:l > ^ha 透歌平開一, 託何切 > 타 / 池 *^hal > ɬie 澄支平開三, 直離切 > 지 / 施 *^hljal > ei 書支平開三, 式支切 > 시 / 蛇(蛇) *ɬljal > zia 船麻平開三, 食遮切 > 사

③ 世聲系(盍2部·月2部) : 世 *^hljebs > ei 書祭去開三, 舒制切 > 세 / 葉 *^hleb > jiep 以葉上開三, 與涉切 > 엽 / 諫 *^hɛ:b > dep 定帖入開四, 徒協切 > 첩 / 揲 *ɬljed

14) 현대 중국의 방언 중에 민남어의 성모 l-은 파열음화한 유음으로, 유성음 d-와 청각적으로 매우 가깝게 들린다. 일찍이 董同龢(1957)에 의해서 민남인들이 영어의 late와 date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은 민남어의 l-이 일반적인 유음보다 파열음 성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또한 王敏東(1996)은 민남인들은 일본어의 ㄌ行과 ㄴ行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うどん(우동)을 烏龍(ㄍㄨㄌㄨㄥ)이라고 음역했고, おでん(오뎡)을 黑輪(ㄍㄨㄌㄨㄣ)이라고 음역했다고 하였다. 鄭張尙芳 체계에서는, 후대에 d-(定母)나 ɬ-(澄母)로 변한 유음에는 프라임 부호(prime symbol)를 덧붙여 l'-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일반적인 유음 l-과 구분한다. 董同龢, <廈門方言의 音韻>,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29本第1分, 1957년 11월, 233쪽. 王敏東, <中文裡的外來語—從日文中借用之外來語>, 《第七屆中國文字學全國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萬卷樓圖書有限公司, 1996년 4월 1판, 408쪽.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년 12월 1판, 135쪽.

〉 zirt 船薛入開三, 食列切) 설¹⁵⁾

2.2.2 *hNj-

비음이 핵자음 역할을 하는 諧聲系列에도 書母가 등장하는데, 鄭張尙芳은 *hnj-・*hnj-・*hmj-와 같이 재구하였다. 아래에 몇 개의 예를 든다.

① 女聲系(魚部) : 女 *na? > niA 泥魚上合三, 尼呂切) 녀 / 恕 *hnjas > ciA 書魚去合三, 商署切) 서 / 如 *nja > n₁iA 日魚平合三, 人諸切) 여

② 聶聲系(盍2部) : 聶 *neb > niEP 泥葉入開三, 尼輒切) 섭¹⁶⁾ / 攝 [hnjeb]¹⁷⁾ > eiEP 書葉入開三, 書涉切) 섭 / 謫 *njeb > n₁iEP 日葉入開三, 而涉切) 섭

③ 堯聲系(宵2部) : 堯 *ŋe:w > ŋeu 疑蕭平開四, 五聊切) 요 / 燒 *hnjew > ciFu 書宵平開三, 式招切) 소 / 饒 *ŋjew > n₁iFu 日宵平開三, 如招切) 요 / 趙 *ŋ^hew > k^hiFu 溪宵平開重紐四, 去遙切) 교 / 翹 *gew > giFu 群宵平開重紐四, 渠遙切) 교 / 曉 *hge:w? > heu 曉蕭上開四, 馨晶切) 호

④ 執聲系(月2部) : 執(藝) *ŋeds > ŋiFi 疑祭去開重紐四, 魚祭切) 예 / 勢 *hnjeds > ciFi 書祭去開三, 舒制切) 세 / 熱 *ŋjed > n₁iFt 日薛入開三, 如列切) 열

⑤ 小聲系(宵2部) : 小 *smew? > siFu 心宵上開三, 私兆切) 소 / 少 *hmjew? > ciFu 書宵上開三, 書沼切) 소 / 秒 *mew? > miFu 明宵上開重紐四, 亡沼切) 초¹⁸⁾

15) 해당 한자 뒤에 나열된 순서는 “상고 재구음 > 중고 재구음 <《切韻》聲母・韻母・聲調・合開口・等・反切> 현대 한국 한자음”이며, 재구음은 鄭張尙芳(2003)에 의거하였다. 이하 동일.

16) 본품은 ‘넙’, ‘섭’은 攝字의 영향으로 생겨난 관용음.

17) <古音字表> 428쪽에는 攝字의 상고 재구음이 *?njeb으로 되어 있다. 鄭張尙芳 체계에서 *?nj-는 중고 章母의 상고 연원 중 하나이므로 이는 미스프린트가 분명하다. *hnjeb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古音字表> 469쪽에는 역시 書母字인 戍字의 상고 재구음이 *ŋljɔs로 되어 있다. 鄭張尙芳 체계에서 *ŋlj-는 중고 船母의 상고 연원 중 하나이므로 이 또한 미스프린트가 분명하다. *ŋljɔs로 수정해야 한다. 다만, 人字와 戈字를 결합하여 만든 회의자인 戍字는 諧聲에 쓰이지 않은 글자이므로, *ŋlj-・*hNj-・*q^hj-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8) 본품은 ‘표’, ‘초’는 抄字와 炒字의 영향으로 생겨난 관용음.

⑥ ㄱ聲系(錫部) : ㄱ *me:g > mek 明錫入開四, 莫狄切 > 먹 / 𪛗 *hmjeg > ciɛk
書昔入開三, 施隻切 > 석

①·②와 같이 핵자음이 *n-인 諧聲系列에 나타나는 書母의 상고 연원은 *hnj-이며, ③·④와 같이 핵자음이 *ŋ-인 諧聲系列에 나타나는 書母의 상고 연원은 *hnj-이고, ⑤·⑥과 같이 핵자음이 *m-인 諧聲系列에 나타나는 書母의 상고 연원은 *hmj-이다.

2.2.3 *q^hj-

潘悟雲(1997)은 影系 성모 중 상당수가 연구개 파열음과 諧聲하는 현상에 근거하여 影系의 상고 연원으로 *q- > ʔ-(影母) / *q^h- > h-(曉母) / *g- > f-(匣母)와 같이 구개수 파열음을 설정하였다.¹⁹⁾ 鄭張尙芳 체계 역시 이 구상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 파열음이 핵자음 역할을 하는 諧聲系列에 나타나는 書母의 상고 연원을 *q^hj-로 재구하였다. 아래에 몇 개의 예를 든다.

① 支聲系(支部) : 支 *kje > ʈɛi 章支平開三, 章移切 > 지 / 技 *gre > gɥi 群支上開重紐三, 渠綺切 > 기 / 𪛗(翅) *q^hjɛs > ciɛ 書支去開三, 施智切 > 시

② ㄴ聲系(幽2部) : ㄴ *kuw > kiɯ 見尤平開三, 居求切 > ㄱ / 糾 *kruw? > kiɯ 見幽上開重紐三, 居黝切 > ㄱ / 收 *q^hljɯw > ciɯ 書尤平開三, 式州切 > 수

③ 殷聲系(耕部) : 殷(磬) *k^he:ŋs > k^hɛŋ 溪青去開四, 苦定切 > 경 / 聲 *q^hjɛŋ > ciɛŋ 書清平開三, 書盈切 > 성 / 馨 *q^he:ŋ > heŋ 曉青平開四, 呼刑切 > 형

www.kci.go.kr

19) 潘悟雲, <喉音考>,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潘悟雲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年12月第1版. 210-239쪽. 원게재 《民族語文》1997年第5期.

3. 出土資料에 根據한 先行研究

3.1 趙彤(2003)・윌리엄 백스터(William H. Baxter/2010)

裘錫圭(1985/1998/2010)는 갑골문・금문・죽간 등 先秦 시기의 고대 한자 자료에 보이는 𣎵字가 후대의 設字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木・土・𣎵²⁰⁾을 결합하여 만든 𣎵字는 다름 아닌 藝字의 本字로, 本義는 ‘나무를 심다’이다.²¹⁾ 設字는 前漢 시기에서부터 보이는데, 이 시기의 자료인 武威漢簡에서는 ‘설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𣎵字와 設字가 구별 없이 혼용되었으나, 後漢 시기로 넘어오면 𣎵字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設字만이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 裘錫圭의 연구 결과이다.²²⁾

그런데 문제는 設字과 𣎵字가 모두 月部에 속하기는 하나 중고 성모가 가깝지 않다는 것이다. 設字은 書母字이고 𣎵字는 疑母字인데, 裘錫圭는 𣎵字에서 소리를 얻는 勢字가 書母字이므로, 設字와 𣎵字가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王力 체계에서는 書母와 疑母의 상고 재구음이 중고음과 동일하게 c-와 ɲ-이므로는 裘錫圭로서는 이런 식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趙彤(2003)은 郭店楚簡에 보이는 𣎵字를 設字로 읽는 현상에 근거하여, 設字의 상고 성모를 *ɲj-로 재구하였다.²³⁾ 윌리엄 백스터(2010)는 裘錫圭의 연

20) 𣎵, 잡다 극. 사람이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두 팔을 앞으로 뻗은 모습을 그린 글자.

21) 李旭昇, 《說文新證》上冊, 臺北: 藝文印書館, 2002年10月初版, 藝字條, 181-182쪽.

22) 裘錫圭, <釋殷墟甲骨文裏的‘遠’‘𣎵’及有關諸字>, 《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6月第1刷, 167-176쪽. 원게재 《古文字研究》第12輯, 1985年. 裘錫圭, <古文獻中讀爲‘設’的‘𣎵’及其與‘執’互訛之例>, 《裘錫圭學術文集》語言文字與古文獻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6月第1刷, 451-460쪽. 원게재 《東方文化》第36卷, 1・2號合刊, 1998年. 裘錫圭, <再談古文獻以‘𣎵’表‘設’>, 《裘錫圭學術文集》語言文字與古文獻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6月第1刷, 484-495쪽. 원게재 《先秦兩漢古籍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0年.

23) 趙彤, 《戰國楚方言音系》,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06年5月第1版, 63쪽. 본서는 北京大學 博士研究生學位論文 《戰國楚方言音系研究》(2003年)를 출판한 것임.

구 성과에 근거하여 設字의 상고 재구음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윌리엄 백스터(1992)의 재구음인 *h(l)jet을 *ŋet으로 수정하였다.²⁴⁾ 더불어서 액슬 쉬슬러(Axel Schuessler/2007)가 고대 한자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원 연구를 진행한 결과 藝字와 設字를 동원어휘로 판단하여, 設字의 상고음을 *ŋ^het으로 재구하였음을 소개하였다.²⁵⁾

3.2 金俊秀(2011)

季旭昇(2001)은 郭店楚簡의 窮達以時篇과 唐虞之道篇, 그리고 上博楚簡의 子羔篇에서 舜字를 ‘𢆏’과 같이 쓴 것에 근거하여 舜字는 允字에서 분화한 글자임을 밝혔다. 또한, 楚帛書에는 帝舜이 ‘帝𢆏’으로 쓰여져 있으며²⁶⁾, 《山海經》의 ‘帝𢆏’을 郭璞이 帝舜으로 주석한 것을 증거로 들었다.²⁷⁾

이로서 舜字가 실상은 允聲系에 포함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允字는 以母字이므로 그 諧聲系列의 핵자음은 *l-이다. 이러한 諧聲系列에 등장하는 書母字의 상고 연원은 *hlj-이므로, 舜字의 상고음은 *hljuns로 재구될 수 있다. 鄭張尙芳(2003) 역시 이와 같이 재구하였는데, 이는 允字와의 諧聲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書母의 주류 연원인 *hlj-를 적용한 것일 뿐이다. 金俊秀(2011)는 允字와의 諧聲 관계가 증명됨으로서 舜字를 *hljuns로 재구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았다.²⁸⁾

24) William Hubbard Baxter,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2年第1版. William Hubbard Baxter, <‘執’、‘勢’、‘設’等字的構擬和中古sy- (書母 = 審三)의來源>, 《簡帛》第5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年10月第1版, 161-177쪽.

25) 또한, 액슬 쉬슬러는 티베트-미얀마 語族에 속하는 루샤이(Lushai)語의 ŋ^het^L(확고하다, 설치하다)을 방증 자료로 제시하였다. Axel Schuessler, *ABC Etymological Dictionary of Old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年第1版, 570쪽.

26) 𢆏字는 允字에서 소리를 얻는다.

27) 季旭昇, <讀郭店、上博簡五題: 舜、河澣、紳而易、牆有茨、宛丘>, 《中國文字》新27期, 臺北: 藝文印書館, 2001年12月第1版, 114-118쪽.

28) 金俊秀, <‘允’、‘𢆏’、‘舜’諧聲考>, 《古文字特殊諧聲研究》,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

3.3 노하라 마사키(野原將揮/2012)

郭店楚簡의 五行篇과 上博楚簡의 緇衣篇에 仁字가 ‘憲’과 같이 쓰여져 있다. 노하라 마사키(2012)는 이에 근거하여 身字의 상고 성모가 비음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身字를 N-type 書母²⁹⁾로 재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楚簡에서 信字를 흔히 ‘訃’과 같이 쓰는 것에 착안하여, 信字에서의 人旁과 訃字에서의 千旁 모두 聲符일 것이라고 하였다.

上博楚簡의 容成氏篇에 등장하는 道字는 蹈字로 읽힌다. 蹈字는 以母字인 𠂔字에서 소리를 얻는 L-type³⁰⁾이므로, 노하라 마사키(2012)는 이에 근거하여 道字의 聲符라고 추정되는 首字 역시 L-type 書母로 재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학자들도 首字와 道字의 상고 성모를 L-type으로 재구하였는데, 노하라 마사키(2012)는 楚簡의 이 通假例에 근거하여 ‘復元의 強度’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³¹⁾

4. 先行研究에 대한 檢討 및 評價

《詩經》押韻은 韻部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고 성모의 재구에 있어서는 《說文解字》에 수록된 형성자들의 諧聲偏旁이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그러나, 諧聲에 완전히 혹은 거의 쓰이지 않는 일부 상형자・지사자・회의자의 경우에는 그 상고음의 재구에 있어서 諧聲偏旁을 이용하기 어

研究所 博士學位論文, 2011년6월, 231-241쪽.

29) 書母의 연원 중에서 鼻音을 포함하고 있는 그룹. 鄭張尙芳 체계에서는 *hnj-・*hɲj-・*hmj-가 여기에 해당한다.

30) 𠂔는 以母字이므로 그 상고 성모는 *l-이다. 𠂔에서 소리를 얻는 蹈는 定母字이므로, 그 상고 성모는 파열음화된 유음인 *l'-로 추정할 수 있다. 노하라 마사키는 이렇게 핵모음이 유음인 해성계열의 글자들을 L-type라고 칭하였다.

31) 野原將揮, <上古漢語書母に關する基礎的研究>,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2012年第2分冊, 2012년2월, 192-193쪽.

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設字・身字・首字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舜字의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본래 允字에서 소리를 얻는 형성자이나, 자형의 訛變으로 인해서 그 자형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이다. 아래에서 글자별로 상세히 살펴본다.

4.1 設字의 上古 聲母

윌리엄 백스터(1992)와 鄭張尙芳(2003)이 設字의 상고음을 각각 *h(l)jet과 *hljed으로 재구한 까닭은 회의자인 設字 자체가 聲符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主諧字로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³²⁾ 단순히 《切韻》書母의 여러 연원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hlj-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裘錫圭(1985/1998/2010)의 연구를 통해서 𣎵字와 設字의 관계가 밝혀진 이상, 設字의 상고음 재구에 있어서 𣎵聲系字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𣎵聲系는 主諧字인 𣎵(藝)字가 疑母字로 연구개 비음 *ŋ-을 핵자음으로 한다. 𣎵字에서 소리를 얻는 勢字는 書母字로 그 상고음은 *ŋjet-s(B-S)・*hŋjeds(鄭張)으로 재구된다. 그러므로 역시 書母字인 設字의 상고 성모 역시 비음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윌리엄 백스터(2010)는 設字의 상고음을 *ŋjet으로 수정 재구하였고, 이는 B-S(2011)에 채용되었다. 이를 鄭張尙芳 체계에 적용하면 *hŋjed가 된다. 이 재구음은 액슬 쉬슬러(2007)가 밝힌 바와 같이 루샤이語 ŋ^het^L의 지지를 받는다. 다만 액슬 쉬슬러(2007)는 𣎵字와 設字를 동원어휘로 보았으나, 裘錫圭(1985/1998/2010)의 연구를 통하여 𣎵字와 設字는 실상 新舊用字의 차이일 뿐, 같은 어휘를 적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www.kci.go.kr

32) 《說文解字》에 수록된 글자 중에서 設字에서 소리를 얻는 글자는 設(향풀 설)字 하나 뿐이다.

4.2 身字의 上古 聲母

身字 역시 諧聲에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인데, 楚簡에서 ‘𠂔’이 仁字로 읽히는 예는 노하라 마사키(2012)가 든 2例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다.³³⁾ 아래 字形表에 楚簡에서 仁字로 읽히는 글자를 일부 나열한다.

			
01 郭店・ 唐虞之道 15	02 郭店・ 忠信之道 8	03 郭店・ 唐虞之道 2	04 郭店・ 老子丙 3
			
05 郭店・ 五行 11	06 郭店・ 五行 30	07 上博(一)・ 緇衣 7	08 上博(五)・ 君子爲禮 1

《說文解字・人部》：“仁，親也。從人，從二。𠂔，古文仁，從千心。𠂔，古文仁，或從尸。如鄰切。”(仁, 가까이하고 아낌을 일컫는다. 人과 二에서 의미를 얻는다. 𠂔, 古文 仁字는 千과 心에서 의미를 얻는다. 𠂔, 古文 仁字는 혹은 尸에서 의미를 얻기도 한다. ‘인’이라고 읽는다.) 許慎은 仁字를 회의자로 보았으나,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人旁에서 소리를 얻는 형성자로 보고 있다.³⁴⁾

후세에 계승된 것은 秦系인 ‘仁’이나, 楚簡에서 흔히 쓰인 것은 義符 心旁을 기본으로 하고, 聲符로서 人・千・身을 사용한 자형이다. 자형 01은 人旁에서 소리를 얻고, 자형 02와 03은 千旁에서 소리를 얻고, 자형 04~08은 身旁에서 소리를 얻는다. 人・千・身은 聲符로서 互用되므로 그 고음이 매우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人・千・身은 모두 眞部에 속하는데, 중고 성모는

33) 白於藍의 《簡牘帛書通假字字典》에 ‘𠂔’이 仁字로 읽히는 예가 총66개 수록되어 있다. 白於藍, 《簡牘帛書通假字字典》,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8年1月第1版, 334-336쪽.

34) 李旭昇, 《說文新證》下冊, 臺北: 藝文印書館, 2004年11月初版, 仁字條, 3쪽.

각각 日母・淸母・書母에 속하여 가깝지 않다.

人字와 千字는 본래 諧聲 관계에 있으며, 상고음은 人 *njin() njin 日眞平關三, 如鄰切) / 千 *sn^hi:n() ts^hen 淸先平關四, 蒼先切)과 같이 재구된다. 문제는 身字인데, 仁字가 日母字이므로 身字의 상고 성모에도 비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노하라 마사키(2012)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B-S(2011)는 楚簡의 형성자 ‘𠂔’을 참조하였는지 身字의 상고음을 *ŋiŋ으로 재구하였으나, 鄭張尙芳(2003)은 *q^hjɪn으로 재구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鄭張尙芳 체계에서 *q^hj-는 연구개 파열음이 핵자음 역할을 하는 諧聲系列에 나타나는 書母의 상고 연원이다. 鄭張尙芳이 이와 같이 재구한 까닭은 鎬字의 중고 성모가 溪母에 속하기 때문이다.

《龍龕手鏡・金部》: “鎬、鉦、鏗, 口耕反。一鏘, 金石聲也。三同。”(鎬・鉦・鏗, ‘경’으로 읽는다. 一鏘(갱장),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이다. 세 글자가 동일하다.)

《廣韻・平聲・耕韻》: “鏗, 鏗鏘, 金石聲也。口莖切。鎬, 上同。”(鏗, 鏗鏘(갱장),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이다. ‘경’이라고 읽는다. 鎬, 위와 같다.)³⁵⁾

즉, ‘鎬’은 鏗(첫소리 갡)字의 異體인데, 先秦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後起字이다. 後起俗字인 担(擔)이나 战(戰)에 의거해서 先秦 시기에 -n과 -m이 자유롭게 諧聲했다고 할 수 없듯이, 後起異體인 ‘鎬’에 의거해서 身字의 상고 성모를 *q^hj-로 재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鄭張尙芳(2003)의 <古音字表>는 後起字를 적잖이 수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古音字表>의 베이스로 沈兼士의 《廣韻聲系》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비록 先秦문헌에 보이지 않는 後起字에는 #표시를 덧붙여 구분하고 있지만, 상고음을 재구하는데 있어서 後起字에만 근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35) 反切에 의거한 鏗字의 바른 독음은 ‘경’이나, 宣祖9年(1576)에 柳希春이 지은 《新增類合》에 이미 ‘깡’으로 注音符號되어 있고, 현대 한국한자음으로는 ‘갱’으로 읽는다. 權仁瀚, 《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서울: 도서출판 제이앤씨, 2009年2月改訂版1刷, 16쪽.

身字의 상고음 재구에 있어서 後起字 ‘錫’보다 楚簡의 ‘憲’이 우선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鄭張尙芳(2003)은 日母字인 仁字의 상고음을 *njin으로 재구하였으므로, 書母字인 身字는 [*hnjin]으로 수정 재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4.3 首字의 上古 聲母

《說文解字·辵部》：“道，所行道也。從辵，從首。一達謂之道。徒皓切。”(道,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辵과 首에서 의미를 얻는다. 막힘없이 뚫린 것을道라고 한다. ‘도’라고 읽는다.) 許慎은 道字를 회의자로 풀이하였으나, 道字와 首字는 공히 幽部에 속하며, 先秦 문헌에는 道字와 首字가 서로 通假하는 예가 적잖이 보인다.

《易經·明夷(卦三十六)》：“九三：明夷于南狩，得其大首，不可疾，貞。”(어두컴컴해졌을 때 남쪽으로 사냥을 가면, 큰 길을 찾을 것이나, 서두르면 안 되고 침착해야 한다.)³⁶⁾ 高亨 《周易大傳今注》：“首，借爲道。”(首는 道의 假借字이다.)

《逸周書·周月解》：“周正歲道。”(주나라 달력의 정월 첫째날) 黃懷信 《逸周書校補注譯》：“道，首之誤。”(道, 首가 잘못된 것이다.)

《逸周書·芮良夫》：“予小臣良夫稽道謀告。”(저 소신 양부 머리 조아리며 아뢰옵니다.)³⁷⁾ 王念孫 《讀書雜誌》：“稽道，卽稽首也。道從首聲，故與首字通用。”(稽道는, 곧 稽首(머리를 조아리다)를 일컫는다. 道는 首에서 소리를 얻기에, 首字와 통용될 수 있다.)

《左傳·成公十六年》：“楚晨壓晉軍而陳。軍吏患之。范匄趨進，曰：‘塞井夷竈，陳於軍中，而䟽行首。’”(새벽에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 군대를 압박하는 진을 펼쳤다. 진나라의 참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범개가 앞으로 나서며 진언하였다. “우물을 메우고 아궁이를 없앤 뒤에, 바로 이 군영에서 진을 펼쳐, 대열 간의 길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³⁸⁾ 王引之 《經義述聞》：“首，當讀爲道。疏，通也。謂通陳

36) 《易經》의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黃壽祺·張善文譯註, 《周易譯註(修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年9月第1刷, 294·298쪽. 周振甫譯註, 《周易譯註》, 北京: 中華書局, 2007年6月第8刷, 128쪽.

37) 《逸周書》의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黃懷信, 《逸周書校補注譯》,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1996年3月第1刷, 272·394쪽.

列隊伍之道也。”(首는 마땅히 道로 읽어야 한다. 疏는 通이다. 바로 펼쳐진 대열 사이의 길을 통하게 함을 일컫는다.)³⁹⁾

首字와 道字가 通假한다는 것은, 두 글자의 古音이 가까우므로 諧聲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鄭張尙芳(2003) 역시 道字를 首字에서 소리를 얻는 형성자로 판단하였다.⁴⁰⁾ 그는 定母에 속하는 道字의 상고 성모는 유음에서 변해 온 것으로 보고 *l'u?와 같이 재구하였으며, 그 聲符인 首字의 상고음은 *hlju?로 재구하였다. B-S(2011)에서도 두 글자의 諧聲 관계를 인정하여 首*hlju? / 道*kə.l'u?와 같이 재구하였다. 노하라 마사키(2012)가 근거한 上博楚簡 容成氏篇의 문구는 紂王之 炮烙之刑을 묘사한 부분인데, 다음과 같다.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容成氏》：“紂不述其先王之道，自爲改爲，於[이상 42번 죽간]是乎作爲九城之臺。寘孟炭其下，加園木於其上，使民道之，能遂者遂，不能遂者，入而死。[이상 44번 죽간]”(주왕은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고쳤기 때문에 9층의 높은 대를 쌓아올렸다. 솥을 담은 그릇을 밑에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놓은 뒤,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는데, 지나가는 자는 지나갔으나, 지나가지 못한 자는 솥으로 떨어져 죽었다.)⁴¹⁾

이 구절의 ‘使民道之’에서 道字를 蹈字로 通假하여 읽는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匣聲系는 핵자음이 *l-인데, 腭열음화하여 중고음으로는 透母와 定母로 변화한 글자가 많다.

① 匣聲系(幽1部·宵3部) : 匣 *lu > jiu 以尤平開三, 以周切 > 유(掄字와 同字) ·

38) 《左傳》의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楊伯峻編著, 《春秋左傳注(修訂本)》第2冊, 北京: 中華書局, 2000年7月第6刷, 883쪽. 沈玉成譯, 《左傳譯文》, 北京: 中華書局, 2005年1月第6刷, 238쪽. 李夢生譯註, 《左傳譯註》上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年12月第2刷, 598·607쪽.

39) 首字와 道字의 通假例 및 후대의 주석은 다음에 근거하였다. 馮其庸·鄧安生纂著, 《通假字彙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年3月第1版, 920쪽·1056쪽.

40)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年12月第1版, 127쪽.

41) 죽간의 編聯과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蘇建洲, <<容成氏>譯釋>,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讀本》,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3年7月初版, 172쪽.

*lowʔ > jiFu 以宵上開三, 以沼切 > 요 / 滔・韜・諂・慆・梹・搯 *l^hu: > t^hau 透豪平開一, 土刀切 > 도 / 稻 *l^ʼu:ʔ > dau 定豪上開一, 徒皓切 > 도 / 蹈 *l^ʼu:s > dau 定豪去開一, 徒到切 > 도

② 首聲系(幽1部): 首 *hljuʔ > ciu 書尤上開三, 書九切 > 수 / 道 *l^ʼu:ʔ > dau 定豪上開一, 徒皓切 > 도 / 導 *du:s > dau 定豪去開一, 徒到切 > 도⁴²⁾

鄭張尙芳(2003)이 首字의 상고 성모를 *hlj-로 재구한 것은 道字와의 諧聲 관계에 근거한 것인데, 道字와 蹈字의 通假例를 통해서 首聲系字와의 음성적 관련성도 증명되었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首聲系의 핵자음은 *l-이므로, 首字의 상고성모를 *hlj-로 재구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하나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4 舜字의 上古 聲母

《說文解字・舜部》: “舜, 艸也。楚謂之菑, 秦謂之蔓。蔓地連華。象形。從舛, 舛亦聲。𡗗, 古文舜。舒閏切。”(舜, 풀이름이다. 초나라에서는 菑라고 부르며, 진나라에서는 蔓이라고 부른다. 땅에 덩굴이 퍼져서 가지마다 꽃이 핀다. 상형이다. 舛에서 의미를 얻으며, 舛이 소리도 나타낸다. 𡗗, 古文으로 舜字를 이렇게 쓴다. ‘순’이라고 읽는다.) 郭店楚簡과 上博楚簡에서 舜字가 발견되면서 許慎의 자형 풀이는 정확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舜字는 본래 舛旁을 따르지 않으며, 韻部도 같지 않다.⁴³⁾

42) 導字는 道字의 分化字인데, 鄭張尙芳이 *l^ʼu:s로 재구하지 않고, *du:s와 같이 재구한 것은 이미 유음의 파열음화가 이루어진 뒤에 분화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43) 舜字는 文部에 속하고, 舛字는 元部에 속한다.

 01 戰國·楚· 郭店·窮達以時 2	 02 戰國·楚· 上博·子羔 2	 03 戰國·楚· 郭店·唐虞之道 23	 04 前漢·馬王堆 ·孫臏 19
 05 前漢·馬王堆 ·老子甲後 313	 06 前漢·馬王堆 ·古地圖	 07 前漢· 公舜乘印	 08 後漢· 武梁祠畫象題字

자형 01과 02는 고대 한자 자료에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의 舜字인데, 允字 밑에 火字와 土字가 덧붙여진 모양으로 ‘𣎵’과 같이 隸定할 수 있다. 자형 03은 윗부분의 厶旁을 뒤집어서 쓴 것인데, 《說文解字》에 수록된 古文 ‘𣎵’가 실상은 이런 자형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隸變을 거치면서 允字의 아랫부분인 儿旁과 火字가 결합하면서 점차 舛字와 같은 모양으로 변했으며, 급기야 자형 07과 같은 모양으로 쓰기도 하였는데, 《說文解字》에 수록된 小篆 ‘𣎵’과 매우 유사하다.

舜字는 主諧字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說文解字》에 수록된 글자 중에 舜字에서 소리를 얻는 글자는 舜(무궁화 순)字가 유일하다. 또한 舜字와 舜字 모두 중고음으로 書母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舜字의 상고 성모가 *hlj- · *hNj- · *q^hj-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기 어렵다. 鄭張尙芳(2003)이 舜字의 상고음을 *hljuns로 재구한 것은 設字를 *hljed로 재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중고 書母의 여러 연원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주류 연원인 *hlj-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B-S(2011)는 아예 舜字의 상고 재구음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季旭昇(2001)의 연구를 통해서 允字와 舜字의 관계가 밝혀진 이상, 舜字의 상고음 재구에 있어서 允聲系字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允聲系는 主諧字인 允字가 以母字로 유음 *l-을 핵자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舜字가 본래 允字에서 소리를

얻는다는 고대 한자학의 연구 성과는 舜字의 상고 성모를 *hlj-로 재구하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B-S 체계에 적용시키면 舜字의 상고음을 [*lun-s]로 재구할 수 있다.

5. 信字의 上古 聲母

《說文解字·言部》: “信, 誠也。從人, 從言, 會意。息晉切。” (信, 진실됨을 일컫는다. 人과 言에서 의미를 얻는 회의자이다. ‘신’이라고 읽는다.) 許慎은 信字를 회의자로 풀이하였지만, 고대 한자 자료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信字는 실상 言字에서 의미를 얻고, 人字에서 소리를 얻는 형성자인 것으로 보인다.⁴⁴⁾

 01 戰國·齊· 璽彙 650	 02 戰國·晉· 梁上官鼎	 03 戰國·晉· 中山王鼎	 04 戰國·楚· 璽彙 1664
 05 戰國·楚· 包山楚簡 121	 06 秦·十鐘	 07 秦· 睡虎地秦簡 52.7	 08 前漢·馬王堆· 春秋事語 34

信字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보이지 않고, 戰國 시기의 자료에서부터 다수 보이는데, 자형 01·04·05는 千旁을 따르고, 자형 02·03은 身旁을 따르고, 자형 06은 仁旁을 따르고, 자형 07·08은 人旁을 따른다. 즉, 千·身·仁·人 이 聲符로서 互用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세에 계승된 것은 秦系인

44) 季旭昇, 《說文新證》 下冊, 臺北: 藝文印書館, 2004년11月初版, 信字條, 297쪽.

‘信’이다. 信字 및 千·身·仁·人 모두 眞部에 속하는데, 중고 성모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① 人聲系(眞1部) : 人 **njin* > *n̥jim* 日眞平開三, 如鄰切 > 인 / 仁 **njin* > *n̥jim* 日眞平開三, 如鄰切 > 인 / 千 **sn^hi:n* > *ts^hen* 清先平開四, 蒼先切 > 천

② 身聲系(眞1部) : 身 [**hnjin*] > *eim* 書眞平開三, 失人切 > 신 / 愍(仁) **njin* > *n̥jim* 日眞平開三, 如鄰切 > 인

仁字와 千字는 人字에서 소리를 얻으므로, 人·仁·千이 聲符로서 互用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身字 역시 人·仁·千과 마찬가지로 信字의 聲符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身字의 상고 성모가 비음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2에서 仁字의 異體인 ‘愍’에 근거하여 身字의 상고음을 [**hnjin*]으로 수정 재구하였는데, 身字가 人·仁·千과 聲符로서 互用된다는 사실 역시 이 수정 재구음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信字의 상고 재구음을 검토한다. B-S(2011)는 信字와 人字의 諧聲 관계를 참작하였는지 **s-nig-s*로 재구하였으나, 鄭張尙芳(2003)은 **hljins*로 재구하였다. 鄭張尙芳 체계에서 **hlj*-는 書母의 상고 연원이나, 예외적으로 전 설모음 -i 앞의 **hlj*-는 心母로 변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⁵⁾ 그래서 信字의 고음 변화를 **hljins* > *sim*(心眞去開三, 息晉切)과 같이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 信字의 聲符들이 비음 성모를 가졌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상고음을 [**snins*]로 수정 재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鄭張尙芳 체계에서 중고 心母의 상고 연원은 **s-*·**sl-*·**sq^h-*·**sN-* 4종류가 있는데, 그 중 **sN-*은 핵자음이 비음인 諧聲系列에 등장하는 心母의 연원이다.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든다.

① 需聲系(侯部) : 需 **sno* > *sio* 心虞平合三, 相餘切 > 수 / 孺 **no:* > *nəu* 泥侯平開

45)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년12월第1版, 109쪽.

一, 奴鉤切) > 누 / 儒 *njo > nio 日虞平合三, 人朱切) > 유

② 襄聲系(陽部) : 襄 *snaŋ > sieŋ 心陽平開三, 息良切) > 양 / 囊 *na:ŋ > naŋ 泥唐平開一, 奴當切) > 낭 / 壤 *njaŋʔ > njeŋ 日陽上開三, 奴兩切) > 양

③ 彔聲系(月2部) : 彔 *ŋred > ŋrieŋ 疑薛入開重紐三, 魚列切) > 열 / 薛(薛) *sŋed > siet 心薛入開三, 私列切) > 설 / 孽(孽) *ŋred > ŋrieŋ 疑薛入開重紐三, 魚列切) > 열

④ 逆聲系(鐸部) : 逆(逆) *ŋrag > ŋræk 疑陌入開三, 宜戟切) > 역 / 朔 *sŋrag > ʃrak 生覺入開二, 所角切) > 삭 / 遡 *sŋa:gs > suo 心模去合一, 桑故切) > 소

⑤ 戌聲系(質1部·月2部) : 戌 *smid > siurt 心術入合三, 辛聿切) > 술 / 威 *hmed > hiurt 曉薛入合重紐四, 許劣切) > 혈 / 滅 *med > miŋt 明薛入開重紐四, 亡列切) > 멸

⑥ 亡聲系(陽部) : 亡 *maŋ > mæŋ 明陽平合三, 武方切) > 망 / 荒 *hma:ŋ > hwaŋ 曉唐平合一, 呼光切) > 황 / 喪(喪) *sma:ŋ > saŋ 心唐平開一, 息郎切) > 상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sN-은 *sn- · *sŋ- · *sm- 3종류가 있는데, 信字는 聲符들의 핵자음이 *n-이므로 그 성모를 *sn-으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6. 結論

지난 세기 고대한자학은 출토자료의 등장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내었으며, 그 연구 성과는 옛 중국어음의 복원, 특히 상고음의 재구에 유용한 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본고는 출토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 중에서 書母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평가하고, 더불어 信字의 상고 성모 문제를 토의하였다. 본고는 이에 근거하여 鄭張尙芳 <古音字表>에 수록된 일부 글자의 재구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設 *hljed → [*hnjed] : 設字는 𪛗字와 같은 어휘를 적은 글자이므로, 상고음 재구에 있어서 𪛗(藝)聲系를 이용할 수 있다. 𪛗聲系의 핵자음은 *ŋ-이므로, 設字의 상고 성모를 *hnj-로 재구한다.

身 *q^hjin → [*hnjin] : 仁字의 상고 성모는 비음인 *nj-이므로, 그 異體인 ‘𡗗’의 聲符인 身字의 상고 성모를 *hnj-로 재구한다.

攝 *fnjeb → [*hnjeb] : *fnj-는 船母의 상고 연원 중 하나이므로 書母字인 攝字의 상고 성모를 *fnj-로 재구한 것은 미스프린트가 분명하다. 聶聲系의 핵자음은 *n-이므로 攝字의 상고 성모를 *hnj-로 재구한다.

信 *hljins → [snins] : 人字의 상고 성모는 비음인 *nj-이므로, 人字에서 소리를 얻는 信字의 상고 성모를 *sn-으로 재구한다.

다음 두 글자는 출처자료에 보이는 현상 및 고대한자학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鄭張尙芳 <古音字表>의 재구음을 뒷받침하는 경우이다.

首 *hlju? : 首字는 道字의 聲符이다. 道字와 蹈字는 通假하는데, 𡗗聲系의 핵자음은 *l-이므로, 首字의 상고 성모를 *hlj-로 재구한다.

舜 *hljuns : 舜字는 본래 允聲系에 포함되는 글자이다. 允聲系의 핵자음은 *l-이므로, 舜字의 상고 성모를 *hlj-로 재구한다.

< 參考文獻 > 46)

王敏東, <中文裡的外來語—從日文中借用之外來語>, 《第七屆中國文字學全國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萬卷樓圖書有限公司, 1996年4月第1版.

白於藍, 《簡牘帛書通假字字典》,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8年1月第1版.

李方桂, 《上古音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3年9月第5刷.

何大安, 《漢語方言與音韻論文集》, 臺北: 文盛彩藝事業有限公司, 2009年7月第1版.

46) 동양인명은 한자 필획순에 따라, 서양인명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나열하였다.

沈玉成譯，《左傳譯文》，北京：中華書局，2005年1月第6刷。

李夢生譯註，《左傳譯註》上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4年12月第2刷。

季旭昇，〈讀郭店、上博簡五題：舜、河諤、紳而易、牆有茨、宛丘〉，《中國文字》新27期，臺北：藝文印書館，2001年12月第1版。

季旭昇，《說文新證》上冊，臺北：藝文印書館，2002年10月初版。

季旭昇，《說文新證》下冊，臺北：藝文印書館，2004年11月初版。

金俊秀，《古文字特殊諧聲研究》，臺北：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2011年6月。

河野六郎著，李珍昊譯，《한국한자음의 연구(朝鮮漢字音の研究)》，서울：도서출판 역락，2010年8月初版。

周振甫譯註，《周易譯註》，北京：中華書局，2007年6月第8刷。

高本漢著，趙元任・羅常培・李方桂合譯，《中國音韻學研究(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北京：商務印書館，2003年6月縮印第2刷。

陳新雄，《廣韻研究》，臺北：臺灣學生書局，2004年11月初版。

野原將揮，〈上古漢語書母に關する基礎的研究〉，《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2012年第2分冊，2012年2月。

黃懷信，《逸周書校補注譯》，西安：西北大學出版社，1996年3月第1刷。

黃壽祺・張善文譯註，《周易譯註(修訂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年9月第1刷。

馮其庸・鄧安生纂著，《通假字彙釋》，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6年3月第1版。

楊伯峻編著，《春秋左傳注(修訂本)》第2冊，北京：中華書局，2000年7月第6刷。

董同龢，〈廈門方言的音韻〉，《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29本第1分，1957年11月。

裘錫圭，《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上海：復旦大學出版社，2012年6月第1刷。

裘錫圭，《裘錫圭學術文集》語言文字與古文獻卷，上海：復旦大學出版社，2012年6月第1刷。

趙彤，《戰國楚方言音系》，北京：中國戲劇出版社，2006年5月第1版。

鄭張尚芳，《上古音系》，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3年12月第1版。

潘悟雲，《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潘悟雲卷》，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2年12月第1版。

蘇建洲，〈<容成氏>譯釋〉，《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讀本，臺北：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2003年7月初版。

龔煌城，《漢藏語研究論文集》，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4年9月第1版。

權仁瀚,《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서울: 도서출판 제이앤씨, 2009年2月改訂版1刷。

Baxter, William Hubbard,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2年第1版。

Baxter, William Hubbard, <‘𪛗’、‘勢’、‘設’等字的構擬和中古sy-(書母=審三)的來源>,《簡帛》第5輯,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0年10月第1版。

Bodman, Nicholas Cleaveland, Some Chinese Reflexes of Sino-Tibetan s-Cluster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Vol.1, No.3, 1973.

Bodman, Nicholas Cleaveland,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Data Towards Establish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Leiden: Brill, 1980年第1版。

Schuessler, Axel, *ABC Etymological Dictionary of Old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年第1版。

< 中文提要 >

本文利用古文字學最新研究成果,檢討鄭張尙芳<古音字表>裡的若干字的擬音,提出修改建議如下:

設 *hljed → *hnjed: 根據古文字資料,‘設’與‘𪛗’只是新舊用字之別,其所記錄的詞是一樣的。𪛗聲系的聲幹爲*ŋ-, 因此設的上古聲母當擬作*hnj-。

身 *q^hjin → *hnjin: ‘仁’的上古聲母爲*nj-, 因此其異體‘𪛗’的聲符‘身’的上古聲母當擬作*hnj-。

攝 *fnjeb → *hnjeb: *fnj-爲船母的上古來源之一,‘攝’的上古聲母擬作*fnj-, 當是排版之誤。聶聲系的聲幹爲*n-, ‘攝’的上古聲母當擬作*hnj-。

信 *hljins → snins: ‘人’的上古聲母爲*nj-, ‘信’以人爲聲, 因此其上古聲母當擬作*sn-。

如下二字, 古文字學最新研究成果支持鄭張尙芳<古音字表>的擬音。

首 *hlju: : ‘道’以首爲聲, 楚簡裡以‘道’爲‘蹈’, 𪛗聲系的聲幹爲*l-, 因此首的上古聲母擬作*hlj-, 可信。

舜 *hljuns: : ‘舜’本從允聲, 允聲系的聲幹爲*l-, 因此舜的上古聲母擬作*hlj-, 可信。

關鍵詞: 上古漢語、古文字、書母、上古聲母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29.	2013. 11. 11.	2013. 11. 17.	2013. 11. 26.	2013. 11. 30.